

## Merck, 한미약품과 고혈압치료제 수출

Merck가 한미약품과 고혈압치료제 아모잘탄을 30개국으로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.

한미약품은 미국 Merck와 복합 고혈압치료제 아모잘탄에 대한 2차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5월19일 발표했다.

아모잘탄의 진출지역은 아시아 6개국을 포함해 총 30여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. 아모잘탄은 2009년 6월 국내 처음 출시된 이후 2년만에 매출 500억원을 기록했다.

한미약품은 글로벌 판매망을 갖춘 Merck와의 계약을 통해 아모잘탄의 해외 진출을 빠르고 폭넓게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, 수출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협의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.

<화학저널 2011/05/19>